재정경제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1.29.(목) 12:00 배포 2026.1.29.(목) 09:00

2026년도 원/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

재정경제부와 **한국은행**은 **2026년도 원/달러 시장 선도은행**(FX Leading Bank, 이하 "선도은행")으로 **국민은행**, **농협은행**, **산업은행**, **신한은행**, **우리은행**, **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**, **하나은행**(가나다 순) **7개 외국환은행**을 **선정**하였다.

선도은행 제도는 **우리 외환시장**의 **건전한 발전**을 위해 **'22년도**에 **도입**되었으며, **재무건전성**, **신용도** 등이 **양호**한 **외국환은행** 중에서 **원/달러 현물환** 및 **외환스왑 거래실적**이 **우수한 기관**을 **1년 단위**로 **선정**하여, **선정된 기관**에 대해 **외환건전성부담금***을 **최대 60%**까지 **감면**해 주는 제도이다.

*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(은행 10bp) 부과

아울러, **재정경제부**와 **한국은행**은 1.9(금) **발표**한 「**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·자본 종합 로드맵**」에 따라 **외환시장 24시간 연장**, **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*** 등 **현재 추진 중**인 **외환시장 제도 개선**이 **시장**에 **원활하게 안착**할 수 있도록 **선도은행**과 **면밀하게 소통**하고, 우리 **외환시장**의 **건전한 활성화**를 위한 **정책적 노력**을 **지속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외국인간 원화 거래·보유(예금)·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(가칭, 역외 원화결제망)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	책임자	과 장 도종록 (044-215-47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용준 (cjeye86@korea.kr)
담당 부서	한국은행 외환시장팀	책임자	팀 장 백봉현 (02-759-5967)
		담당자	과 장 김성기 (sk.kim@bok.or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별 첨 **2026년도 원/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기준**

□ 기본 요건

① **재무건전성**(BIS 총자본비율 8% 이상) 및 **신용도**(A- 이상) 양호

②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**중징계이상 제재 無**

③ 평가대상기간 중 **원/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**에서 **전체 거래량 대비 2.0% 이상의 거래 실적**이 있을 것

□ 평가 기준

○ ①원/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(15%), ②원/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(45%), ③원/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(40%)을 가중평균

- 거래가 체결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*하여 각각 평가

* 한국시간 09시~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, 18시~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, 22시~익일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

원화·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방법

은행별 총점$_i$ = $\sum$(항목별 거래실적^j × 가중치^j)

항 목	가중치	산 식	
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	15%	$\frac{(Min[\text{매수액}_i, \text{매도액}_i] - \text{조정값}_i) \times 2}{\text{매수액}_i + \text{매도액}_i}$	
현물환 호가거래 실적	45%	$\frac{(\text{호가매수액}_i + \text{호가매도액}_i) - \text{조정값}_i \times 2}{(\text{총호가매수액} + \text{총호가매도액})}$	
외환스왑 거래실적	40%	$\frac{(\text{매수액}_i \times \text{만기가중치}) + (\text{매도액}_i \times \text{만기가중치})}{\text{총매수액} + \text{총매도액}}$,	만기가중치 =일수x365/91

※ 다만,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·깊이·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

※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%까지 감면